

##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디어 속 어린이 이미지 연구 '-린이' 사용을 중심으로1)

정서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졸업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및 창의융합연구소 소장2)

### 초록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린이' 라는 접미사가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으나, 최근 미디어에서는 '-린이'라는 접미사를 활용한 새로운 단어들(헬린이, 골린이, 테린이, 주린이, 요린이)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린이' 접미사로 파생된 단어들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위치, 문화적 의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하여 SNS와 주요 인터넷 언론사 다섯 곳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린이' 단어는 정보공유, 교육목적, 일기 목적, 자기성찰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빈도 상위 단어로는 '헬린이', '골린이', '테린이', '주린이', '요린이'였다. 의미 분석 결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린이'가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 이를 자제하자는 의견이 기사 중 47%에 달했다. 본 연구는 '어린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고,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재조명하여 긍정적 인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키워드

어린이, 아동권, 어린이 이미지, 빅데이터

Manuscript received September 18, 2024 / Revision received November 3, 2024 / Accepted November 15, 2024

1) 이 논문은 2023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2) 교신저자: eunjyun@sookmyung.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 1. 들어가는 말

“‘미성숙’은 아동기와 동의어로 수용되어 왔다. 어린이는 취약하고 유약하므로, 성인의 감시와 통제된 기회 그리고 경험의 요구가 있다고 여겨졌다.”

(Murriss, 2016/2021, p. 205)

최근 미디어에는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와 같은 ‘-린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 표현들은 각각 ‘주식+어린이’, ‘등산+어린이’, ‘헬스+어린이’라는 신조어로, 특정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의미한다. 즉, 어린이란 무엇이든 잘 모르고 무언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장슬기, 2022).

2021년 4월 교보문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6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6%가 “-린이”라는 단어를 접해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1%는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5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입장문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을 권리 주체로서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이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린이”는 비하라기보다는 정감 있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립국어원 또한 “이런 표현이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 외에도,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교내 신문에서 신조어 ‘-린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린이’라는 단어가 실력이 낮은 초보자를 의미하는 것은 차별적인 표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린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따라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완전하게 보는 시각이 늘어날 것이며, 편견과 마주하는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소년 단체인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2022년 5월 “잼민이”, ‘-린이’는 어린 사람을 미숙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엄연한 혐오 표현”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어른은 항시 성숙하고, 어린이란 그와 반대로 덜 자란 어른에 불과하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유달리, 2022)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현재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서 어린이를 능동적인 존재

로 바라보는 아동관과, 그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린이’ 단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어린이를 성인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유능하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한다. 어린이의 신체는 어른이 이미 고착화해버린 능력들 이전의 신선함과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다(임부연, 2017).

포스트 휴머니즘 이전, 근대적 관점에서 어린이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어린이와 성인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며 성숙한 존재인 성인과 대칭되는 지점에서 이해되었다. 어린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쉽게 배제되며,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홍주리, 2022). 유아들과 만나는 많은 성인들은 여전히 유아들이 스스로 구성 가능한 학습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습 목표와 가치 있는 학습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은경, 윤은주, 2018 재인용). 즉, 추구하고 있는 기준을 성인으로 한정하고, 어린이를 그 하위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린이’라는 접미사로 파생된 표현은 어린이를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으로 아직 발달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무(無)가 많은 존재로 이해된다(임홍남, 김은주, 2022). 역사적으로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감내해 왔다.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성인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어 왔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였다(황옥경, 2011). 우리는 어린이를 궁극적인 타자 ‘(他者, Other)’의 존재,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아갈 능력이 없고 그만큼 성숙하지도 못한 인간 집단의 개념을 창조해 내었다(Cannella, 1997/2002).

한 사회에서 성인들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은 아동의 권리와 삶, 아동을 위한 제도 및 체계, 아동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과 양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구수연, 나성식, 2011).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백혜리, 2003). 정선아(200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불변하는 발달 특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시간과 공간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제약(constraint)에서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가고 삶의 의미를 구성하여 가는 매우 능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에게 적합한 환경과 접근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자 주체인 유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임홍남, 김은주, 2022). 백혜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인간 존재의 하나이며, 아동관의 문제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인간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며, 그 대상에서 가치를 체험하는 것도 인간이다. 어린이관은 태고적부터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가 당연시하며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아동’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박훈, 2005). 듀이의 의견처럼 아동기의 미성숙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 기보다는 아동기의 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미성숙은 아동이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동기의 배움에 대한 에너지의 원천이다(Dewey, 1916, 구수연, 나성식, 2011). 따라서, 현대 사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어린이의 이미지를 조명하고 탐색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패턴과 의미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면 다량의 질적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이 가능하다. 김문조 외(2018)연구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은 선입견을 배제한 개방적 논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 넓은 시야에서 거시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특정 시점에서의 여론과 사회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린이’ 관련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린이’ 라는 접미사로 파생된 단어의 미디어 사용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린이’ 라는 접미사로 파생된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 2. 연구 방법

### 2.1. 빅데이터 분석

#### 2.1.1.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은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파생하는 과정을 말한다(최수정, 2018). 텍스트 분석은 사회과학, 언어학, 문화학,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현상, 문화적 변화, 의사소통 패턴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텍스트 분석은 도출된 결과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2.1.2.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등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키워드 추출, 패턴 인식 및 패턴 분석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백수미, 문인오, 2021). 텍스트 마이닝은 게시글과 댓글 등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나타내는 정보를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맥락(Context)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안효선, 2017). 텍스트 마이닝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하나의 문서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도출하고, 다른 축적된 문서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객관화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손서희, 2023). 대중들의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의 활용이 요구된다(최수정, 2018).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2.1. SNS 매체

본 연구는 ‘-린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 매체 속 어린이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SNS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온라인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고유 소속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있기(김남중, 2013) 때문에 이용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인 블로그(Blog)는 ‘1인 미디어’라고 불릴 정도로 제한이 없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 사진,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내용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국내에서 블로그는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운영된 대중적인 SNS 채널로,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담아내고 운영하기 좋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와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안효선, 2017, 최수정, 2018). 먼저,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린이’와 관련된 용어들 중 상위 5개 용어를 선정하였다. SNS 속 해시태그에 ‘-린이’ 관련 용어로 검색하였을 때 2024년 10월 기준 ‘헬린이’는 602만개, ‘골린이’는 190만개, ‘테린이’는 56.9만개, ‘주린이’는 31만개, ‘요린이’는 26.1만개로 확인되었다.

### 2.2.2. 인터넷 신문

신문은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로서 심도 있게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해왔다(구명숙, 2010). 현재 국내 뉴스 이용의 대부분은 포털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2019년 6.4%로 떨어진 반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곽선희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를 통해 총 5곳의 신문사를 선정하였으며, ABC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인 인터넷 신문사는 1920년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신문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외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그리고 중도 성향을 띠는 1904년에 창간된 서울신문까지 총 5개의 신문사를 선정하였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수집된 기사 수는 다음과 같다. ‘헬린이’는 총 19건, ‘골린이’는 92건, ‘테린이’는 17건, ‘주린이’는 181건, ‘요린이’는 42건이 검색되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 다섯 개의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는 2019년에 1건, 202년에 76건, 2021년에 238건, 2022년에 94건, 2023년에 25건, 2024년에 6건으로 나타났다.

### 2.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매체에 나타난 어린이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맞게 어린이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문장 내에 단어들 도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한마디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분석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린이’ 관련 단어들 중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였다. 우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린이’와 관련된 상위 5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이후,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트톰(Textom)과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에서 이 5개의 단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홍보성 글은 제외하고, ‘-린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 어린이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문헌들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텍스트톰을 통하여 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TF-IDF와 단어빈도를 수행하여 ‘-린이’ 용어의 사용 현황과 이에 따른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인터넷 신문 기사의 경우, 텍스트 톰 외에도 빅카인즈를 사용하여 인터넷 신문사 별로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

## 3. 연구결과

### 3.1. 빈도분석 및 현황

인터넷 신문과 SNS에서 검색할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 SNS의 해시태그를 검색하고 게시물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린이’라는 단어는 헬스, 골프, 테니스, 주식, 요리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해시태그 수가 많은 단어는 빅데이터 분석에 용이하며, 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헬린이’, ‘골린이’, ‘테린이’, ‘주린이’, ‘요린이’ 총 5개의 단어를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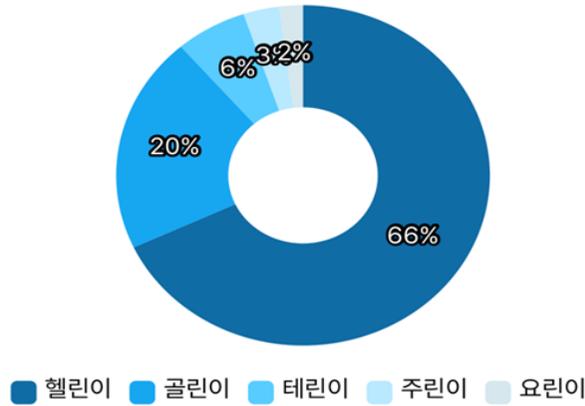


그림 1 해시태크 상위 5개 단어

### 3.1.1. SNS 분석

본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 결과, 5개의 ‘-린이’ 관련 단어가 ‘시작’, ‘초보’, ‘연습’, ‘입문’, ‘공부’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린이’가 특정 맥락에서 초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분석은 블로그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자동 분석 기능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자는 텍스트 내 ‘-린이’ 단어의 사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단어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블로그의 분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년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1 ‘-린이’ 단어 결과

키워드	비율
초 보	41.94%
시 작	32.26%
입 문	12.90%
연습, 처음	6.45%

블로그 내에서의 ‘시작’, ‘초보’, ‘연습’ 등의 단어는 ‘-린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이 어린이를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교육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글에서 ‘-린이’ 단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교육의 일반적 관점 중에 하나인 유아를 성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순진무구하고 약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지식이나 기능 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로 보는(임부연 외, 2021)관점과 일치한다.

‘-린이’ 단어는 초보라는 이유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3.1.2. 인터넷 신문기사 분석

‘-린이’ 관련 단어에 따른 인터넷 신문 기사 내용 분석을 위해, 빅카인즈에서 상위 5개 ‘-린이’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린이’ 라는 키워드에 중복되는 기사들이 확인되어 각 신문사 별로 기사를 임의로 1개씩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진행한 인터넷 신문 기사 분석은 같은 키워드를 신문사 별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린이’ 관련 용어가 기사 속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기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연 온라인 캠페인이 어린이를 무시하는 ‘-린이’ 표현을 쓰지 말라는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공공기관에서 어린이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하루 만에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작성되었다(조유진, 2021. 04. 26).

동아일보의 ‘헬린이’, ‘주린이’, 기사와 서울신문의 ‘주린이’ 기사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동아일보의 ‘헬린이’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입장을 담아, 차별적 표현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동아일보의 ‘주린이’ 기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서울신문의 ‘주린이’ 기사는 기자의 오피니언 글로, 방정환 선생이 격상시키고자 했던 ‘어린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김혜린, 2022. 05. 03).

한겨레 신문에서는 예능에서 사용되고 있는 ‘-린이’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라고 명시하며, 오래 전부터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보고 유행어 등을 따라 한다는 점에 예능프로그램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을 담은 기사가 작성되었다(남지은, 2022. 05. 05).

경향신문에서는,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이라는 프로젝트 관련 기사가 작성되었다. 황선우 작가는 초보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린이’라는 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투르고 잘 못한다는 초심자의 의미로 어린이를 불러오는 일의 부적절함을 깨닫게 되었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칭하는 용어를 비판하였다(이영경, 2022. 11. 17).

서울신문은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배제하거나, ‘헬린이’처럼 특정 분야에 미숙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어린이’를 동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어린이라는 세계를

집필한 김소영 작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소영 작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린이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슬기, 2020. 12. 08).

## 3.2. 단어 사용 의미

### 3.2.1. 헬린이

SNS의 ‘헬린이’와 관련된 단어빈도와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시작’, ‘초보’라는 단어는 헬스에 입문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확인하였다. 또한, ‘루틴’, ‘세트’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했으며, 원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자헬스루틴(routine)방법’, ‘헬린이 루틴… 힙운동’, ‘여자 헬린이 루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체 운동’, ‘여자 헬린이 상체 루틴 공유’ 등과 같은 제목의 글들이 존재했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단 팁 공유’ 등과 같이 헬스에 입문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공유의 글이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을 통해, 헬스 입문자를 위한 정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글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헬스장 루틴, 기구 사용법, 식단 정보 공유 글이 가장 많았으며, ‘헬린이 일기’처럼 자신이 그날 한 운동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들도 확인되었다. SNS 분석을 통해 헬스에 입문한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빅카인즈를 사용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헬린이’라는 단어는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서울시 관련 기관이나 서울문화재단과의 연관성도 드러났다. 또한, 주식 관련 기사나 조기 종료에 대한 언급, 트위터 이용자들의 비판글, 이벤트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헬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초보자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텍스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한 후, 수집된 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분석하였다. 텍스톰 프로그램은 입력된 키워드와 관련된 문장이나 구절을 추출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해당 원문 데이터를 직접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텍스톰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린이’와 관련된 모든 문장들을 검토한 후, 글이 작성된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각 문장을 범주화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은 텍스톰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와 연구자의 해석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표 2 '헬린이' 원문데이터 비율

목적	비율
일기, 기록 목적	38.18%
교육 목적	21.82%
정보공유 목적	20%
자기성찰, 과정 목적	7.27%

분석 결과, '헬린이' 단어 사용자들은 일기, 기록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헬린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이나 다이어트 과정을 일기나 기록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운동 루틴, 식단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3.2.2. 골린이

SNS에서 '골린이'와 관련된 단어 빈도와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연습', '초보', '시작', '입문' 등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머리'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했으며, '골프 유튜브 보며 독학 5개월 골린이 머리 올리기 성공'과 같은 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머리를 올리다'라는 표현은 입문자가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이다. 원래 '머리를 올리다'는 표현은 기생이 정식 기생이 될 때 머리에 쪽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골프에서 이 표현은 처음 시작을 기념하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즉, '머리를 올리다'는 표현은 골프 입문을 여성의 첫 경험에 비유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텍스툼의 원문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테니스와 골프에 새로 입문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두 스포츠가 연관된 내용이 많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테니스'와 함께 '회원', '회원권', '예약' 등과 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골프를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 연습장 예약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 기사를 분석한 결과, '골린이'와 관련된 주요 단어로는 '주가', '브랜드'가 언급되었으며, 주식시장과 연관된 내용도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골프장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골프장 업계의 호황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원문데이터를 확인하여 글이 작성된 목적에 따라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골린이' 원문데이터 비율

목적	비율
정보공유 목적	47.73%
일기, 기록 목적	19.32%
교육 목적	18.18%
자기성찰, 과정 목적	12.50%

범주화 결과를 통하여, '골린이' 단어 사용자들은 정보공유의 목적을 담은 글을 가장 많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원문 데이터 확인 결과, 골프의 경우 다양한 용품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3.2.3. 테린이

SNS의 '테린이'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결과,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정보성 글들이 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시작 전 준비물', '테린이 라켓 고르기', '테린이 라켓 추천' 등의 글들이 조언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강습 N회차', '테린이의 하루', '테린이로그(테린이+브이로그)' 등 레슨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글이 가장 많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 '개인 연습장 추천' 등의 추천 글도 많이 발견되었다.

'테린이'는 골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기에 외부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으며 많은 초보자들이 테니스를 시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테니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연습장 예약이나 회원권 가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단어로는 '회원', '회원권', '예약'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SNS와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테린이'와 관련된 단어로 '여자', '여성'이 상위 20개 단어 안에 포함되었으며, '남자', '남성'이라는 단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커트'가 주요 단어로 등장한 점도 고려할 때, 테니스를 새롭게 시작한 사람 중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원문데이터를 확인하여 글이 작성된 목적에 따라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테린이' 원문데이터 비율

목적	비율
정보공유 목적	41.18%
일기, 기록 목적	35.29%
자기성찰, 과정 목적	9.80%
교육 목적	3.92%

범주화 결과를 통하여 ‘테린이’의 경우 정보공유의 목적을 담은 글이 가장 많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테니스 라켓이나, 테니스를 연습할 수 있는 코트 등 이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해 본 후기, 추천 글을 많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3.2.4. 주린이

SNS에서 ‘주린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 ‘공부’에 관한 글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주식은 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추천, 기록, 정보공유가 담긴 글 보다는 ‘주린이 주식 공부하는 법’, ‘주린이 시절에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주린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투자의 기초’, 주식을 ‘잘 하는 법’과 같은 주식의 기초를 배우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글들이 주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부’, ‘책’, ‘방법’과 같은 단어가 상위 빈도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도 해외 주식 열풍으로 투자를 시작하며 미국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미국’도 상위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 주식 열풍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넷 신문 기사 분석 결과 ‘주린이’와 관련된 주요 단어 중 ‘삼성전자’가 2위로 확인되었다. 국민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시장·회사별 소유자수가 638만 755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다. 이에 주식에 새로 합류한 초보 투자자들은 위험부담이 적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 국내에서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문데이터를 확인하여 글이 작성된 목적에 따라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주린이’ 원문데이터 비율

목적	비율
교육 목적	39.84%
일기, 기록 목적	32.81%
정보공유 목적	21.88%
자기성찰, 과정 목적	3.12%

범주화 결과를 통하여 ‘주린이’는 교육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 주식의 기본 지식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주식 관련 도서나 강의를 추천하는 글도 많이 확인되었다.

### 3.2.5. 요린이

SNS에서 ‘요린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 ‘레시피’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레시피를 참고하며, 간단한 요리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요린이도 가능한 초간단...’, ‘요린이 간단 요리 팁’, ‘요린이도 쉽게 따라하기’ 등 초보자들을 위한 어렵지 않은 요리 방법 소개 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요리 초보나 자취생의 경우 재료 구매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1회분의 재료가 하나의 제품에 담겨있는 ‘밀키트’, ‘키트’에 관한 추천 글도 많이 확인되었다.

인터넷 신문 기사 분석 결과 ‘요린이’의 경우, ‘백종원’과 관련된 단어인 ‘백파더(백종원+Father)’, ‘백종원 요리연구가’가 도출되었다. 백종원은 요리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TV나 유튜브 매체를 통해 간단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인기 요리사로, 이와 관련된 단어가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는 인권위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린이’라는 단어가 차별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정수, 2023. 04. 19). 기사 대부분이 이러한 ‘-린이’ 표현 자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는 SNS에서의 ‘요린이’ 사용이 주로 정보 공유 및 초보자 간의 소통을 위한 것 과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원문데이터를 확인하여 글 작성 목적에 따라 데이터 범주화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요린이’ 원문데이터 비율

목 적	비 율
교육 목적	49.47%
정보공유 목적	23.68%
일기, 기록 목적	14.21%
자기성찰, 과정 목적	1.05%

범주화 결과를 통하여 레시피의 경우 교육 목적을 담은 글로 분류하였더니 ‘요린이’의 경우에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가장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요리 초보자들에게 쉽고 간편한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리 초보자들은 이를 통하여 재료 손질이나 요리 과정이 쉽다고 여겨지는 레시피들을 선택할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며, 미래사회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점(백혜리, 2005)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의 아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과 빅카인즈를 통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에 나온 ‘-린이’ 용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린이’ 관련 용어는 ‘헬린이’, ‘꼴린이’, ‘테린이’, ‘주린이’, ‘요린이’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는 ‘주린이’가 또한, 2021년에 가장 많은 데이터 수집량이 확인되었다.

둘째, 텍스트의 단어빈도, 워드클라우드, 원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린이’ 용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자는 원문 데이터 분석 결과 사용자들이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제 ‘-린이’ 단어 사용자들의 사용 의미 속에는 초보라는 이유로 ‘-린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터넷 신문사의 ‘-린이’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린이’ 사용을 지양하자는 기사가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린이’ 용어 사용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매체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담화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든 발화문/문장은 화자/필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구명숙, 2010).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사고 형성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실제 상황을 가리키고 있으며, 언어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가능한 상황들로 이루어져 있어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그린다(안광복, 2017). 과거 한국에서 어린아이를 부를 때 사용되었던 ‘아해눔’, ‘애녀석’, 말을 못한다는 의미의 ‘infant’와 같은 단어들은 1920년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사회 소파 방정환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하여, 곧 새로운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아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은 1922년 이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에서의 어린이 교육의 출발점이 되

었다. 정선아와 윤은주의 연구(2014)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 교육은 1910년대를 시작으로, 1920년대 본격적인 확장을 맞이하였다. 당시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암울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혐오 표현은 초보자를 의미하는 ‘-린이’의 사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급식충’, ‘초딩’, ‘잼민이’ 등과 같은 단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동을 부정적이고 미숙한 존재로 규정 짓는 단어들로, 아동을 비하하는 언어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회적 통념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을 비하하고 그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에 기여하며,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을 비하하는 언어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는 아동을 미래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언어 사용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홀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는 언어는 개인적인 산물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생산된 것인 동시에 생산되는 것이라며 “언어는 단순한 산물(ergon)이 아니고 작용하는 힘(energeia)으로 일정한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강현석 외, 2014). Aitchison에 따르면, 인터넷 언어는 단순히 언어의 타락이나 쇠퇴가 아니라 언어 변화의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된다. 더 이상 인터넷 언어가 저속하고 무조건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터넷 언어 사용 욕구와 필요성, 그리고 그 파급력을 인정하여 또 다른 형태의 언어로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장진아, 2019 재인용). 언어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쓰이는 말들이 실제 상황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안광복, 2017), 이 단어의 사용은 어린이를 어른보다 하위에 위치시키고, 어린이를 아랫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어린이의 능력과 가치를 저평가하며, 어른의 부족함을 어린이에게 투사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에게서 희망을 보았던 소파 방정환의 운동을 통해 ‘어린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이전과는 다르게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취지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은 지워진 채 우리가 갖 무언가를 시작한 어리숙한 어른을 데려다 ‘어린이’에 비유하는 행위는 은연중에 ‘어른은 항시 성숙하고, 어린이란 그와 반대로 덜 자란 어른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유달리, 2022). 이에 현재 사회에서 아동기는 미래를 위한 준비기의 개념으로만 왜곡되고 있다(김혜금, 2012).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2021년 5월 3일 YTN 라디오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어린이는 능력이나 지위가 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다시 발굴해서 전파하려고 했던 의도, 존중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훼손하는 표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린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린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지위가 낮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라는 존재를 탐구해온 김지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는 ‘어린이’라는 단어의 유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그는 “최근 10년 전부터 ‘초딩 같이 왜 이래’ 또는 ‘급식충’ 등의 말이 만들어지더니 어린이를 걸림돌이 되거나 통제 불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아동을 미숙하며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특성으로만 바라봄으로써 아동을 비하하는 단어는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사용되어 왔다.

‘-린이’ 단어는 어린이와 초보자를 동일시하며, 어린이를 배워야 하는 미숙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가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해되며, 배워야 하는 존재로 자리 잡게 한다(임홍남, 김은주, 2022).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21/2006)은 언어가 사고를 위장하며,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사고와 세계의 한계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 보면, ‘-린이’라는 단어는 어린이를 특정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정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의 사용이 사고와 세계관 형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는 아동에 대해 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다소 이상적이고 피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권동택, 1998). 영유아교육의 학자들(Ahn, 2018; 임부연, 2017; Eunsook, 2006/2008; Cannella, 1997/2002; Davies, 2014/2017; Lenz Taguchi, 2010/2018; Olsson, 2009/2017)은 모더니즘의 산물이자 남자/성인/백인으로 대표되는 이성적 인간이 되지 못한 미성숙하고 발달이 필요한 시기로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피력해왔고, 영유아교육 분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바이다(김현주, 윤은주, 2023). 이러한 배경 속에서 ‘-린이’를 바라보았을 때 ‘-린이’가 처음 사용되었던 의미는 어린이를 묘사한 ‘순수함’이었지만, 그 의미에서 벗어나 점점 ‘부족한 존재’, ‘발달해야 하는 존재’, ‘성인과 다른 존재’로 어린이를 바라보게 만들게 된다.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어린이가 스스로가 아니라 어른인 경우가 많다(김주택, 2016). 이러한 관점은 개별 유아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시선이자 성인의 기준이 목표가 되는 시선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SNS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나타난 ‘-린이’ 단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현대 사회의 사회적 태도와 내포된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언어는 시대적 맥락과 사람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도구이므로, ‘-린이’라는 단어의 분석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린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초보자의 의미를 넘어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를 교

육과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하는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의 어린이 인식이 이러한 제한된 관점을 넘어,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어린이를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촉구한다.

---

## 참고문헌

- 강현식, 강희숙, 박경래, 박용한, 백경숙, 서경희...허재영 (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 콘텐츠.
- 고은경, 윤은주 (2018). 물질의 행위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유아 숲 체험활동의 비판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38(3), 195-213. DOI : 10.18023/kjece.2018.38.3.008
- 곽선혜, 유홍식, 이정배 (2022). 국내 인터넷신문의 유명한 SNS 활용 기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4), 159-171. DOI : 10.5392/JKCA.2022.22.04.159
- 구명숙 (2010). **신문 보도기사와 사설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수연, 나성식 (2011). 2000년대 한국 아동영화에 나타난 아동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405-421.
- 국가인권위원회 (2022, 05. 03).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21진정0367800). Retrieved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_02001&boardtypeid=24&boardid=7607929](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_02001&boardtypeid=24&boardid=7607929)
- 권동택 (1998). 아동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 랑에펠트(M.J.Langeveld)의 “어린이 인간학”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6(1), 287-294.
- 김남중 (2013). **인터넷 일본어 신조어의 특징과 생성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조, 이왕원, 이해수, 서병조 (2018). 빅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언론사 뉴스기사와 사회과학 학술논문의 ‘미래사회’ 관련 키워드 분석. **정보화정책**, 25(4), 37-64. DOI : 10.22693/NIAIP/2018.25.4.037
- 김주택 (2016). **어린이 역사교육의 논리와 실천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윤은주 (2023).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영유아교육 분야에 적용된 들뢰즈(Deleuze)의 신체(body)개념에 대한 이해. **창의융합연구**, 3(2), 1-12. DOI : 10.23021/JCC.2023.3.2.1
- 김혜금 (2012). 신문광고 내 아동의 사회적 이미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일보 광고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5-51.

- 김혜린 (2022, 05. 03). 인권위 “‘주린이’, ‘헬린이’ 표현 자제해야…아동 비하 우려”.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3/113212336/2>
- 남지은 (2022, 05. 05). 예능아, ‘요린이’라 부르지 말아줄래?.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41685.html](https://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41685.html)
- 박훈 (2005).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의 형성. **동아연구**, 49, 135-162.
- 백수미, 문인오 (2021). 텍스트마이닝 및 CONCOR 분석을 활용한 환자안전문화 융복합 연구주제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9(12), 359-367. DOI : 10.14400/JDC.2021.19.12.359
- 백혜리 (2003). 한국에서의 아동관 연구 동향과 과제. **교수논총**, 14, 351-380.
- 백혜리 (2005). 아동관 연구를 위한 개념적 구조. **교수논총**, 17, 232-250.
- 손서희 (2023).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패션쇼핑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댓글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광복 (2017).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어크로스.
- 안효선 (2017).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감성분석 연구: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슬기 (2020, 12. 08). “노키즈존·헬린이…어린이를 감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8025043>
- 이영경 (2022, 11. 17). 확진자·○밍아웃·암 걸릴 듯… “나도 모르게 쓰던 차별의 언어, 이제 그만”.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171617001>
- 이정수 (2023, 04. 19). “몰카·꽃뱀·여경·조선족·잼민이 표현 사용 삼가주세요”.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9500127>
- 유달리 (2022). **이제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포레스트.
- 임부연 (2017). 포스트 휴먼 어린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69, 1-20.
- 임부연, 광승주, 권혜진, 김성숙, 서보순, 손은실 ... 정선아 (2021). **유아·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공동체.
- 임홍남, 김은주 (2022). 『장자』를 통해 본 ‘유아’의 의미와 유아교육적 함의. **교육사상연구**, 36(3), 109-140. DOI : 10.17283/jkedi.2022.36.3.109
- 장슬기 (2022).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아를.
- 장진아 (2019). **국어와 영어 혼합형 신조어의 형태, 의미, 사회언어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아 (2002).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 고찰: 인쇄술, 대중교육의 맥락에서. **아동권리연**

- 구, 6(2), 365-384.
- 정선아, 윤은주 (2014).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도입전개 배경의 재조명, *유아교육연구*, 34(1), 309-326. DOI : 10.18023/kjece.2014.34.1.013
- 조유진 (2021, 04. 26). “~린이 표현 그만 쓰세요” … 못매맞은 서울시 산하기관.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6/UGMBMW WYARAAVJD5P YQMSJBZPI/](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6/UGMBMW WYARAAVJD5P YQMSJBZPI/)
- 최수정 (2018).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한 프로농구 발전 방안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한양초등학교 신문방송국 (2022, 07). 한양어린이. 제 153호 봄·여름 통합호.
- 황옥경 (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5(3), 313-335. DOI: 1021459/kccr.2022.26.1.83
- 홍주리 (2022). *유아교사의 아동인권인식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n, H. J. (2018). Some challenges for early childhood nature education with the perspectives of deleuze and guattari.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 95-113. DOI : 10.18023/ijece.2018.24..006
- Cannella, G. S. (1997).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유혜령 (역) (2002). *유아 교육 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 창지사.
- Davies, B. (2014). *Listening to children being and becoming*, 변윤희, 유혜령, 윤은주, 이경화, 이연선, 임부연 (공역) (2017).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이기’와 ‘되기’*. 창지사.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Macmillan.
- Eunsook, H. (2006). *Teachable moments: Re-conceptualizing curricula understandings*, 손유진, 김남희, 남미경, 정혜영, 이경화, 손원경 (공역) (2008).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와 실천*. 서현사.
- Lenz Taguchi, H. (2010). *Going beyond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신은미, 안효진, 유혜령, 윤은주, 이진희, 임부연, 전가일, 한선아, 변윤희 (공역) (2018). *Deleuze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구분 넘어서기*. 창지사.
- Murris, K. (2016). *The posthuman child*. 이연선, 변윤희, 손유진, 신은미, 이경화, 한선화 (공역) (2021). *포스트 휴먼 어린이: 그림책과 철학하기를 통한 교육적 변화*. 살림터.
- Olsson, L. M. (2009). *Movement and experimentation in young children’s learning*, 이연선,

- 이경화, 손유진, 김영연 (공역) (2017). **들뢰즈와 가타리를 통해 유아교육 읽기**. 살림터.
- Wittgenstein, L.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이영철 역 (2006).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ildren in Media Using Big Data Focusing on the Usage of ‘-ren’ Terminology**

**SEOWON JEONG**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UNJU YUN**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reativity and Converg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usage and meaning of the suffix “-ren:” when attached to roots or words, by utilizing big data. The word “children” originally conveyed respect toward young children. Recently, new words incorporating the suffix “-ren” have emerged in the media. Henc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se words, derived by adding the suffix “-ren” reflect perceptions of children, their social status, and their cultural significance. For this purpose, we used text mining, a text analysis method, to examine articles from five major online media outlet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words derived by adding “-ren” were used for information sharing, educational purposes, journaling, and self-reflection. The five most frequently occurring words were “gym-ren,” “golf-ren,” “tennis-ren,” “stock market-ren,” and “cooking-ren.” An analysis of the meanings of these words revealed that they were often used in a negative context, with 47% recommending restraint from using “-ren” because of its derogatory connotation toward children. Since the term "children" originally arose from a call to respect children, this study seeks to remind people of this meaning. It sheds light on the societal views regarding children, thereby encouraging positive perceptions.

---

### **Keyword**

Children, Perspective on Children, Image of Children, Big Data